



감염병관리 월간동향

Monthly News of Communicable Diseases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 032-440-2743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국내 감염병 발생동향 ('11. 11. 29 현재) ◆

※ 발생현황 : 전국 51,365건 / 인천 5,260건 (전국의 10.2%)

구분	감염병	전월(10월) 현황		당월(11월) 현황		2011년 현황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총계	4,750	309	6,877	550	51,365	5,260
1군	소 계	191	31	134	20	5,852	985
	콜레라	0	0	0	0	2	0
	장티푸스	8	0	7	1	139	3
	파라티푸스	0	0	1	0	53	4
	세균성이질	9	1	6	0	162	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0	2	0	70	3
	A형간염	168	30	118	19	5,426	966
2군	소 계	2,444	233	3,963	471	38,131	3,916
	백일해	7	0	17	5	81	13
	파상풍	3	0	2	0	18	0
	홍역	3	0	6	1	57	7
	유행성이하선염	514	44	559	67	5,596	693
	풍진	2	1	5	0	51	3
	일본뇌염	2	0	0	0	4	0
	수두	1,766	181	3,207	389	30,693	3,113
	급성B형간염	37	6	55	7	478	70
	산모B형간염	106	1	108	2	1,123	17
	주산기B형간염	4	0	4	0	30	0
3군	소 계	2,107	45	2,775	59	7,303	357
	말라리아	46	9	11	3	840	125
	성홍열	41	1	44	7	451	31
	수막구균성수막염	1	0	0	0	7	0
	레지오넬라증	0	0	1	0	27	0
	비브리오패혈증	3	0	1	0	51	3
	발진열	5	0	3	0	22	2
	쯔쯔가무시증	1,835	22	2,548	42	4,627	67
	렙토스피라증	13	1	15	0	46	1
	브루셀라증	2	0	0	0	21	0
	공수병	0	0	1	0	3	0
	신증후군출혈열	83	2	89	1	310	12
	CJD/vCJD	5	0	2	0	26	2
	매독(1기)	52	9	47	5	618	91
	매독(2기)	17	0	11	1	216	18
	매독(선천성)	4	1	2	0	38	5
4군	소 계	8	0	5	0	79	2
	덴기열	8	0	4	0	68	2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1	0
	큐열	0	0	0	0	7	0
	라임병	0	0	1	0	3	0

상기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웹통계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로 검사결과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한 미확정 통계임.

◆ 만 성 기 침 ◆

“아이가 두달이 넘게 기침을 했는데 도무지 좋아지지가 않는다.” 또는 “애는 지난 추석 때 시골 내려갔다가 시작된 기침이 여직까지다.” 등 아주 오랫동안 기침을 했다는 호소를 자주 듣는다. 3주 이상 기침을 할 경우 만성 기침을 의심해 보고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장·노년층의 경우 기침이 지속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기침약만 복용하는 등 가볍게 생각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급성기침은 지속기간이 3주 이내인 경우이며 그 원인으로는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세균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기도질환의 급성악화 등이 흔한 원인이며, 아급성 기침은 3주에서 8주정도 지속되는 기침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감염 후(post-infectious)기침, 기관지천식, 아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이 흔한 원인이고, 만성기침은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급성, 만성으로만 구별할 때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기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 만성기침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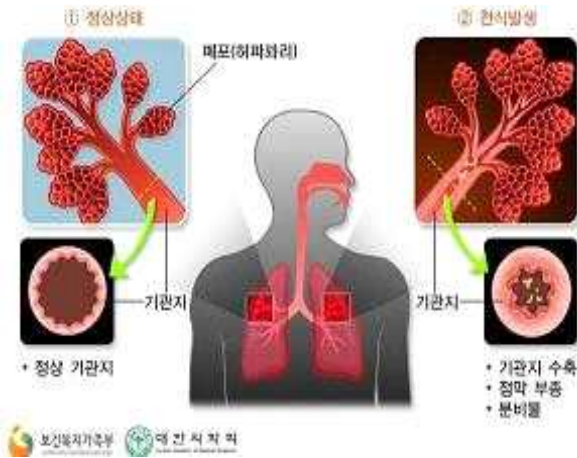
성인		소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비루 증후군 천식 유식도 역류질환 호산구성 기관지염 혈압약 관련된 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되지 않은 기관지염 담배 등에 의한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반응성 기도 질환 알레르기 부비동염 심인성 만성기침 특정균에 의한 감염 : 클라미디아, 백일해, 결핵 등

1. 후비루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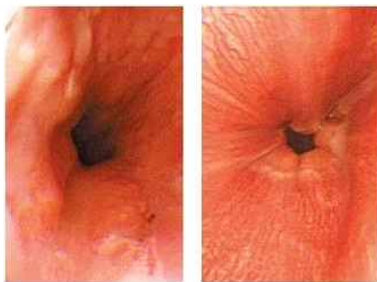
만성기침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이며 대부분 비강 분비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나 자주 목에 가래가 붙어있어서 자주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여 떼어낸다거나, 콧물이 자주 나고 내시경 소견 상 구인두에 점액이 붙어있거나 점막에 변화를 보이는 등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2. 기관지 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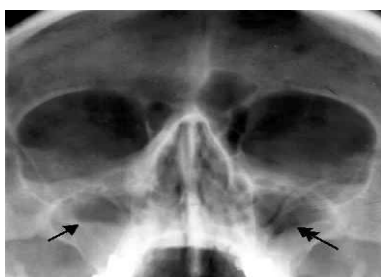
물론 천식은 봄에 많이 나타나는 황사,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기도나 코의 점막에 달라 염증이 생겨 증상이 심해진다. 이 천식이 후비루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비염과 함께 결합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만성 기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위식도역류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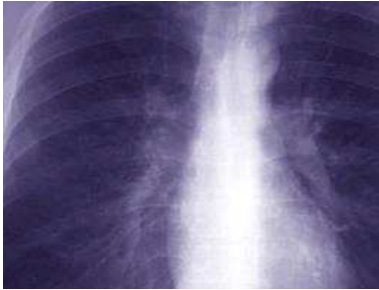
위식도역류질환은 만성기침의 3대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질환이다. 그것은 기침의 특징이나 시간적인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위식도역류의 75%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위식도역류이기 때문이다. 가슴앓이 증상이나 위 내용물의 역류 증상이 있고 특히 흉부사진상 흡인의소견이 있으면 더 확실하지만, 흉부사진이 정상소견이면서 위, 식도 증상이 없더라도 만성기침의 원인으로 후비루나 기관지천식, 호산구성 기관지염이 배제된다면 위식도역류질환이 만성기침의 원인인 경우가 있다.

4. 부비동염



흔히 축농증이라 불려지는 이 질환은, 어른이나 나이가 조금 든 아이들은 증상을 정확히 표현 할 수 있어 그 부분에 압통이나, 답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6세 미만의 소아는 진단이 매우 힘들고, 알레르기증상, 단순 코막힘 같은 증상과 그 구분이 매우 어려울 때가 많다. 맑은 콧물을 보이는 선행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 있다가 이 증세가 좋아지지 않고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성부비동염을 의심해야한다.

5. 비천식성 호산구성 기관지염



이 질환은 1989년 Gibson 등에 의해서 기술되었는데 천식과 같이 기도나 객담에 호산구가 증가(비편평상피세포의 3%이상)하는 질환으로 천식과의 차이점은 기관지과민성이나 기관지폐색의 변이성이 없다는 점이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아토피성, 비아토피성 모두에서 생길 수 있으며, 흡연 유무와도 무관하게 생길 수 있고, 직업과 관련된 화학자극물질(레진, 알레르겐)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6. 혈압약 관련된 기침

혈압약(ACEI)유발성 기침은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10%정도에서 발생하며 목이 간질거리는 느낌과 심한 마른기침이 주된 증상으로서 폐기능과는 무관하다. 기침이 나타나는 시점은 약 복용 후 수 시간에서 수주 내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며 약을 중단하면 호전되나 완전히 소실되는데 약26 일간의 시간이 걸린다.

7. 화농성기도질환 및 기타 기도병변

기관염, 기관지염, 세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 등의 화농성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도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는데 화농성이라고 하여 반드시 감염이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또 상기한 진단수기로 서 만성기침의 원인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암이나 성대 기능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지내시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만성기침은 그 원인이 다양하나 특징적인 소견이 별로 없고, 결정적인 검사방법이 없어 진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다루기 힘든 증상이다. 기침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재발이 잦은 질환도 있어서 환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성기침의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 제산제와 소화관운동촉진제 등의 치료제 사용과 함께,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카페인·알코올·초콜릿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